

1/14/24

2부 핵심예배

성경의 중직자

롬 16:1-5

성경은 기준이다. 우리의 믿음과 신앙 생활과 모든 삶과 생각의 기준이다. 중직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중요하게 선택된 사람이고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다. 교회의 저변이요 기둥이며 미래다. 뿐만 아니라 각 교회의 중직자는 세계복음화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. 당연히 우리 교회 중직자도 미국과 남미에 중요한 인물들이 다 되어야 할 것이다.

1. 올인 인생

- 1) 비비 -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것 도와주라
- 2) 브리스가 아굴라 -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 놓았나니
- 3) 식주인 가이오
- 4) 오바다
- 5) 라합, 요게벳, 한나, 루터를 숨겨준 성주

2. 지교회

- 1) 5: 그의 집에 있는 교회
- 2) 루디아 - 귀신들린 여종 - 간수와 그 가족
- 3) 야손 -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- 적지 않은 귀부인
- 4) 롬 16:9, 15 - 동역자 - 함께 있는 모든 성도
- 5) 고전 16:15 스테바나의 집 - 교회의 시작은 거의 중직자로부터

3. 중직자와 교회

- 1) 응답 받을 현장
- 2) 첫 번째 사명 - 인생 발판
- 3) 램네프 운동의 주역 - 금토일
- 4) 교회 경제 - 사명

4. 결론

- 1) 복음 안에서 나의 것을 가진 중직자는 끝까지 간다. 나의 237.
- 2) 모든 예배에는 하나님의 흐름이 있다.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다.
- 3) 언약이 성취되면 된다. 그러면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다.